지구의 색깔

(눅10:1~9)

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3.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구의 색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구의 색깔'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우주선 안에 몸을 담고 돌고 있다가, 지구를 보게 됩니다.
지구에서만 달을 봤지, 우리가 대기권 바깥에서 지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권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 유리 가가린이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지구는 파랗다. 아! 너무 아름답다' 지구색깔이 파랗다는 얘기에요.
공기가 대기권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 빛의 굴절 산란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파란 색깔로 보이고, 파란 보석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도 가끔 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살아서도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중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매개로 해서 이 세상을 접하고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며 살아가듯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빠져 나가게 되면, 성령을 매개로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승천해 계신 그 천국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천국을 우리 마음이 느낄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계인 천국을 우리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바깥,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떤 색깔일까요?
대기권 바깥에서 바라볼 때 지구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천국에서 지구를 바볼 때 색깔은 누렇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이 희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색깔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벼 밭이건 밀밭이건, 밀밭이 되어서 희어졌건 주님의 표현대로 벼 밭이라서 누렇게 됐건 간에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색깔.
황금빛 물결, 황금빛 들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수의 색깔이 바로 천국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색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십니다,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은 70인을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단순히 선교적인 어떤 영적인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뒤에 승천하시므로 십자가의 길을 다 내신 다음에, 그 길을 걷게 되므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근데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천국으로 마음이 올라가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구를 지구 바깥에서 천국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 이 지구는, 온통 추수할 곡식으로 꽉 찬 들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천국에서 만약에 대통령후보가 된 박근혜 씨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4분5열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대단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본의 노다 총리를 바라보는 것과 대한민국 한반도에 발을 딛고 일본에 노다 총리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중국에 후진타오 주석을 봐도 그렇고, 북한에 김정은을 바라봐도 이 땅 한반도에 발을 딛고 바라보면 북한 주민들을 억누르고 독재자로 보이지마는, 천국에서 바라볼 때는 천국을 모르고 이 지구 안에 갇혀서 지구에서 보여 지는 일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두어 들여야 될 곡식으로 바라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의 색깔이 추수의 색깔이, 완전히 우리 신앙인의 삶을 그 내용적으로 결정짓고 규정하고, 천국에 마음이 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걷지 않는 모든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끔 해 준다는 얘

기입니다.
이 지구의 색깔이, 천국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색깔, 황금물결로 이루어진 이 지구의 색깔이.

자 여러분, 본문에 또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액션을 취하십니다, 파송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보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걷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 내면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 교통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눈을 떴는데도 내 몸이 살아 있습니다.
내 몸이 죽으면 곧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천국에서 천국을 느끼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 내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지구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느꼈는데, 눈 떴을 때 내 몸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은 내가 보냄 받아서 이 지구에서 삶을 살아야 될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있던 자로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누런 곡식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 좋음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그 평강을 느낀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달리 이루고 싶은 게 없는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다 혈안이 되어서 이 지구 안에서의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 제로, 존재감 제로인 목표를 향하여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들에게 빨리 이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알려 주겠다는 그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임하시기 이전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성령님 임하시고 난 이후의 삶을 윤곽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스케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돈 넣는 지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만, 오순절 이후의 시점이 되면 저절로 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 미래에 있을 삶의 모습, 천국을 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보냄 받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은, 명령형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문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을 느끼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통에 참여했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승천하신 주님을 느끼는, 스테반이 마치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마음은 성령님의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느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몸에 필요한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됩니다.
몸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먹는 일 입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지금은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파송 되지만,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천국으로부터 파송될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파송 될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지갑에 대한 생각, 주머니에 대한 주머니가 뭡니까? 이 몸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품을 담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전혀 안하게 돼, 이런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색깔을 추수할 밭의 색깔로, 황금물결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보내졌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은 좀 뜬금없이 들어온 말 같아요.
지금 이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집에든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또 거기서 신발도 어떤 사람은 줄 것이고, 옷이 해어졌다면 옷도 줄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맥락의 이야기 속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주석가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복음전파의 긴박성 때문에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가라고 말 할 만큼, 그 복음전파의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비비 꽈서.

지금 이 맥락은 보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실존의 내용인데, 이렇게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를 전하겠다는 오직 일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존에 대해서는 몸의 생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

는 중에 나타난 이야기이면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아직 천국에서부터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내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안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전도여행 가서 먹고 살고 입고, 해야 될 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심사인데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당연히 그 아는 사람에게 문안할 때 무엇을 말하게 되고 어떤 도움을 청하게 됩니까?
'선교를 떠나는 나의 후원자가 돼 달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가 돼 달라'
'에이~ 스폰서나 후견인은 요즘에나 있는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견인과 이런 스폰서가 반드시 이 시대 때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전도 비용으로 마음이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문안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그 인맥을 내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마찬가지 항목으로 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등장한 거라는 얘기에요
요즘 말하면, 선교사로 떠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나라를 전파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라, 그들이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심한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혈연관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인연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나라를 전했을 때, 그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가 맺어야 될 인간관계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면서 맺게 되는 관계 안에서 내게 필요한 삶의 조건도 충당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장을 나가도, 천국에서 직장을 바라봤을 때는, 직장전체는 바로 황금물결의 벼 밭입니다. 논이에요 논.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비록 내가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마는, 호시탐탐 만나는 동료, 만나는 부하직원, 만나는 상사 사장에게,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갔을 때, 주어지는 월급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이라는 추수밭에 들어간 추수꾼인 나에게 주시는, 조달의 내용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일한 대가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천국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황금물결로 보이는 황금의 색깔 추수할 때가 된 흰 밭으로 보이는, 그런 색깔로 바라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나라를 전해야 될 대상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 관심 하에서 내 몸의 생존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 몸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충당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 안으로 들어가 천국을 느끼고, 그 천국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의 색깔이 박근혜 씨도 김정은 씨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의 노다 총리도 후진타오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추수의 대상이고, 하늘나라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난사람, 시장에서 만난 사람, 직장에서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지금 여

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모른 체,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일 저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천국에서 보는 지구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지구의 색깔만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저절로 다~ 내 마음에서 그 방법과 마음가짐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의 색깔을 천국에서 확인하시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천국, 지금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천국에 먼저 도달하게 해 주시고, 천국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색깔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깊이 깨닫고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